

## 독을 쌓고 지키는 마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함께 막아 냅시다-



강 문 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리에게 많은 상처를 남겨준 여름이 저물고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서게 되었습니다. 집중 호우와 연이은 혹서로 많은 피해를 입으신 양계인 여러분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한 응원을 보냅니다. 모처럼 맑은 하늘과 서늘한 바람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계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계인들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런 걱정거리 가운데 하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일 것입니다. 최근까지도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유럽지역을 포함하여 여러 대륙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사람이 감염되어 사망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3월 이후에는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철새들이 이동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다시 긴장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림부는 지난 2003년 이후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여 방역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여러 가지 가능한 전파경로 및 요인에 대하여 각각의 세부적인 대응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공·항만의 검역관과 검역탐지견을 증원 배치하고 해외여행객의 휴대 축산물 검색과 이에 대한 홍보를 늘리는 등 공·항만에서 국경검역을 강화합니다. 국내 방역을 위해

서는, 발생 가능성이 높아 집중관리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 예찰을 강화하고 사육중인 오리와 철새, 텃새 등에 대한 분변검사를 실시하며, 특히 감염되더라도 임상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바이러스 전파원이 될 수 있는 오리와 철새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질병 유입 방지와 조기 발견을 위한 조치들을 강화합니다. 최근에는 철새에 의한 유입 및 전파가능성이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해 강조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모든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철새 도래지에서 분변 채취 및 정밀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방역 대책도 양계인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가 없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양계산업 보호라는 튼튼한 독을 쌓고 지키는 심정으로 작은 틈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자율 방역과 주의 사항을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바이러스는 아주 작은 미생물로 사람, 차량, 기계 등에 묻어서도 전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을 통제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농장 안팎의 철저한 방역은 기본입니다. 또한, 철새나 텃새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축사, 사료창고, 분뇨처리장에 대해 문단속, 그물망 설치, 비닐 포장 등의 차단조치를 해야 합니다. 양계농가에서는 철새도래지 방문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하게 방문하게 된 경우 필요한 소독 후 귀가하셔야 합니다. 사육 중인 닭이나 오리에서 의심 증상이 발견되거나 야생 조류 폐사체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가까운 방역 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양계산물(닭고기·계란 등)은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까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으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에 유입되어 발생하게 될 경우라도 국내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할 경우,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에서 사육중인 모든 닭과 오리는 희생시켜 매몰하고, 계란과 사료 등도 소독 후 폐기처리 하며, 반경 3~10km 사이의 가금류 및 그 생산물에 대해서도 이동통제를 즉각 실시하게 되므로 오염된 식육이나 계란이 국민들에게 제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중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주변국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 양계인들에게는 지속적인 경계 요인이 되고 있으나, 반면 이로 인해 발생 국가로부터는 양계산물의 수입이 금지되는 등 새로운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주변 환경의 변화를 양계인들께서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철저한 소독 등 자율 방역을 통한 전반적인 질병 방역 수준의 향상, 위해요소의 관리 등 위생 수준의 향상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양계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양계인들 모두 보람과 기쁨의 미소를 짓고, 건강하게 생산된 양계산물들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어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탁이 풍성하게 유지되도록 우리 수의과학검역원 식구들도 양계인들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계**